

고려전기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과 불상조성

민 활 *

- I. 머리말
- II. 남한강 유역 고려전기 불상의 현황
- III. 남한강 유역 고려전기 불상의 다양성
 - 1. 통일신라의 계승과 고려전기 양식의 공존
 - 2. 중국 遼代의 신도상 유입
 - 3. 독창적 불상양식의 형성
- IV.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배경과 특징
 - 1. 선종사원의 건립과 漕運
 - 2. 선종사상의 변화와 도상 수용
- V. 맺음말

I. 머리말

남한강은 영월 오대산에서 발원해 한반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대하천이다. 상류부터 영월, 제천, 충주, 원주,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등의 도시를 지나, 남양주 지역에서 북한강과 만나고 한강으로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든다. 현대의 지리적 개념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평 보리사와 광주 천왕사 등의 사례처럼 왕실의 후원 아래 대규모 사원이 건립되고, 선승들이 직접 주지로 파견되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고려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다. 또한, 수운을 이용해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주 덕흥창과 원주 흥원창이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력 역시 집중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된다.¹

이렇듯 남한강에는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가 유입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남한강 주변에는 약 60여점의 불교조각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고려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² 이 불교조각들은 대부분 철불과 석불이며 남한강을 낀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한강 유역의 고려시대 불교조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충주나 원주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작품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³ 이 지역의 철불과 관련한 연구 역시 진행되었는데, 개별 철불에 관한 논문과 함께 중부지역이라는 특정범주를 설정하고 양식계보를 밝힌 논문을 비롯해 향마촉지인이라는 특정 도상에 주목하기도 하였다.⁴

남한강 지역의 고려시대 불교조각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원주나 충주 등 연구대상의 범위가 특정한 지역에 치중되어 왔고, “중부지역”이나 “중원문화권”이라는 용어로 이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한강 유역”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문화권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조성된 고려전기 불교조각의 현황, 불상의 다양성,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남한강 유역 고려전기 불상의 현황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에서 조성된 불교조각은 철불과 석불을 포함하여 모두 67구에 달한다. 상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한강 상류지역인 제천에 4구, 충주에 13구, 원주에

¹ 서영일, 「남한강 수로(水路)의 물자유통과 흥원창(興元倉)」, 『史學志』 37(2005. 4), p. 195.

² ‘고려전기’라는 시기구분은 고려가 건국된 918년 이후부터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1170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³ 이광희, 「충주지역의 고려시대 석불 연구」, 『역사와실학』 21(2001. 12), pp. 5-46; 『실학사상연구』 21(2001.12); 임영애, 「元祐5年(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12(1999. 3), pp. 195-211; 임영애,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미술사학연구』 228·229(2001. 3), pp. 39-63; 임영애, 「고려전기 원주 지역의 불교조각」, 『교류로 본 한국 불교조각』(학연문화사, 2008), pp. 135-163; 최성은, 「原州地域의 高麗時代佛敎彫刻-나말려초 석불과 철불을 중심으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과 불교문화』(강원발전연구원, 2004), pp. 32-42.

⁴ 최성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불교미술연구』 2(1995. 7), pp. 27-45;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철불의 양식 계보」, 『講座美術史』 8(1996.1), pp. 21-35; 최성은, 「高麗初期 抱川出土 鐵佛坐像 研究」, 『美術資料』 61(1998.11), pp. 4-23.

19구, 여주에 5구가 분포되어 있고, 하류 지역에는 이천에 13구, 양평에 5구, 광주와 하남에 2구, 포천 6구 등이다(표 1).⁵

표 1 남한강유역 고려전기 불교조각 현황

지역	유물명	현소재지	지정현황	비고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청풍면 청풍 문화재단지 內	보물 제546호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한수면 송계리 산1-1번지	보물 제406호	
	덕주사 약사여래입상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	시도유형문화재 제196호	
	시곡리 석조여래입상	송학면 시곡2리	문화재자료 제41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수안보면 미륵리 미륵세계사	보물 제96호	1192년 중수
	오갑사지 석불좌상	양성면 모점리 동막마을	시도유형문화재 제144호	1192년 중창
	용답사 석불입상	신니면 문승리 용답사		
	용화사 석불입상	주덕읍 삼청리 용화사		
	울릉리 석불입상	충주박물관 야외전시실		
	장성리 석불좌상	충주박물관 야외전시실	유학사지에서 이관	
	성불사 석불좌상	충주박물관 야외전시실	괴산군 불정면에서 이관	
	중원 원평리 미륵석불	신니면 원평리 선조사지	시도유형문화재 제18호	
	중원 창동 마애불좌상	가금면 창동리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하구암리 석불입상	충주박물관 민속자료실		
	단호사 철불좌상	단월동 단호사	보물 제512호	
	대원사 철불좌상	지현동 대원사	보물 제98호	
백운암 철불좌상	엄정면 괴동리 백운암	보물 제1527호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1	원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실	시도유형문화재 제4호	
	일산동 석불좌상2	원주역사박물관 야외전시실	시도유형문화재 제4호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호저면 용곡리 402-1	시도유형문화재 제42호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봉산동 산6-1	시도유형문화재 제67호	
	봉산동 석불좌상	원주역사박물관	시도유형문화재 제68호	
	호저면 석불좌상	원주역사박물관		
	입석사 마애불좌상	소초면 흥양리 산1	시도유형문화재 제117호	1090년
	본지전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춘천박물관		
	傳영전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춘천박물관		
	수암리 마애삼존불상	소초면 수암리 산254-2	시도유형문화재 제118호	
	평장리 마애공양보살상	소초면 평장리 산78-2	시도유형문화재 제119호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흥업면 매지리 1368	시도유형문화재 제120호	

⁵ 포천은 지리적으로 남한강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북한강 지류를 통해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포천 지역의 불상 중 개경지역의 상과 양식적으로 밀접한 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남한강 수운이 한강을 거쳐 수도인 개경까지 연결되었던 점과, 수운이라는 교통로를 이용한 교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고에 포함시켰다.

지역	유물명	현소재지	지정현황	비고
원주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봉산2동 산38		
	학봉정 석조보살입상	원주시립박물관		
	원주출토 철불좌상 1	국립중앙박물관		
	원주출토 철불좌상 2	국립춘천박물관		
	원주출토 철불좌상 3	국립춘천박물관		
	원주 본저전동출토 철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원주출토 철조약사불좌상	국립춘천박물관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홍천면 계신리 559	시도유형문화재 제98호	
	포초골 미륵좌불	금사면 외평리 454-1	시도유형문화재 제35호	
	도곡리 석불좌상	금사면 도곡리 산7	시도유형문화재 제160호	
	상구리 석불입상	상구리 산 11-23		
	청안리 미륵불	점동면 청안리 미륵사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관고동 산64-1	보물 제822호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마장면 장암리 183-1	보물 제982호	981년
	영원사 석조약사불좌상	백사면 송말리 435		
	어석리 석불입상	장호원읍 어석리 564-4	시도유형문화재 제107호	
	소고리 마애여래좌상	모가면 소고리 91-9	시도유형문화재 제119호	
	소고리 마애삼존불상	모가면 소고리 91-9	향토유적 제8호	
	자석리 석불입상	설성면 자석리 51 연화정사	문화재자료 제41호	
	이평리 석불입상	마장면 이평리 267-22	문화재자료 제70호	
	대포동 석조여래입상	대포동 산81-3	향토유적 제11호	
	동산리 마애여래입상	호법면 동산리 산121	향토유적 제9호	
	갈산동 석불입상	갈산동 83		
	관고동 석불입상	관고동 218 법왕정사		
	선읍리 석불입상	장호원읍 선읍리 산110		
광주	하사창동 출토 철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하남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교산동 산10-3 선법사	보물 제981호	977년 중수
양평	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개군면 상자포리 36-1	시도유형문화재 제171호	
	불곡리 석불입상	개군면 불곡리 11 미륵사	향토유적 제29호	
	공세리 석불입상	개군면 공세리 128-1 금강사		
	공세리 석불좌상	개군면 공세리 128-1 금강사		
	사나사 철불좌상	용문면 용천리 사나사	不傳, 『조선고적도보』	
포천	포천 석조여래입상	어룡동 산19	시도유형문화재 제155호	
	신흥사지 석조여래좌상	관인면 중1리		
	초과리사지 석조약사여래좌상	관인면 초과2리		
	구읍리 석불입상	군내면 구읍리 165	향토유적 제5호	
	구읍리 미륵불상	군내면 구읍리 601-1 용화사	향토유적 제6호	
	포천출토 철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도 1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고려 전기(1192년 중수), 돌, 상높이 973cm, 충주 미륵 세계사



도 2 관고동 석불입상, 고려, 돌, 상높이 367cm 어깨너비 95.8cm, 이천 대각사

현존하는 남한강 유역의 상들 중 명문이나 관련유물 등을 통해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은 발굴조사를 통해 1192년에 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충주 <오갑사지 석불좌상> 역시 같은 해인 1192년의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비슷한 시기에 중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 <홍양리 마애불좌상>과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은 바위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각각 1090년과 981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

현존하는 남한강 유역의 석불은 모두 56구로 그 수가 많은 편인데, 상류지역인 제천부터 하류지역인 포천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철불은 모두 11구로서 충주에 3구, 원주에 5구를 포함해, 광주와 양평, 포천에서 각각 1구씩이 확인된다.⁶

전체 56구에 달하는 석불은 봉안형태에 따라 입상과 좌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입상은 32구로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남한강 유역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상들로는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증원 <원평리 미륵석불>, 이천 <관고동 석불입상> 등을 꼽을 수 있다(도 2). 이 석불들은 원통형의 신체에 얼굴 형태는 원형이나 방형이고 신체에 비해 손이 큰 편이며, 사각형이나 팔각형, 또는 원형의 보개를 착용한 경우도 있다. 수인은 시무외여원인이 가장 많으며, 약기인이나 연꽃을 들고 있는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석불 외에 11구의 철불이 확인된

⁶ 원주에서 출토된 5구의 철불과 광주 하사창동 출토 철불, 포천 출토 철불은 현재 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양평 사나사 철불의 경우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되었고 현재는 사진자료만 남아 있다. 또, 포천 출토 철불의 경우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와 1927년에 간행된 『奉先寺本末寺誌』의 기록을 통해 수습 당시에는 2구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구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철불 1구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하나』(하늘재, 2002), pp. 143-145.



도 3 하사창동 출토 철불좌상,
고려전기, 철, 상높이 28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
고려전기, 철, 상높이 110cm
무릎너비 78cm, 국립춘천박물관

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고려전기의 철불이 30여구 인 점에 비추어 보면 11구라는 숫자는 많은 편에 해당 되는데, 특히 원주에 5구, 충주에 3구 등 한 지역에 여러 구의 철불이 집중되는 점도 특징이다.⁷

남한강 유역의 철불은 조성된 숫자만이 아니라 조형성도 뛰어나 고려전기 철불을 대표한다. 즉, <하사창동 출토 철불>처럼 높이가 3m에 이르는 대형의 상이 조성되기도 하고(도 3),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처럼 조각기법이 뛰어난 상이 제작되었다(도 4).

남한강 유역에서 철불조성이 활발한 것은 철이라는 재료의 특성과 관련되며 특히 충주지역이 주목된다.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최자가 쓴 『三都賦』를 비롯해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충주는 철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 기록을 통해 철을 생산하고 국가에 공물을 납품했던 “다인철소”가 위치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양평 보리사 대경대사비 음기」에는 “鐵匠令 聰敏과 鐵匠 仲源府人 香淵”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충주출신의 철장이 양평에까지 진출해 불사에 동참했음을 시사한다. 비문에서는 철장의 출신이 증원(충주)임을 밝히고 있는데, 충주의 철 관련 기술과 수공업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기록이다.⁸

또한 고고학조사를 통해서도 충주일대의 이류면 완오리, 본리, 독동 일대, 가금면의 창동, 노은면의 수룡, 소태면의 야동, 충주시 금능동 등지에서는 철생산

7 원주에서 출토된 철불들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봉안처에서 이미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려 있는 사진자료를 통해 상들이 출토된 지역이 원주라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5구의 불상이 모두 한 곳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8 鐵所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으로 등장하는데, 분명하게 鐵所라고 명기된 곳은 충주목의 多仁鐵所, 전라도 무안현의 水多鐵所, 황해도 의 牛峰鐵所 이렇게 3곳뿐이다. 김혜완, 「나말려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2008.3), pp. 282-283.

시설이 확인된바 있으며, 특히 이류면 지역에서만 43군데의 冶鐵址가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⁹ 법천리와 인접하고 있는 충주시 양성면 일대에서도 다수의 야철지가 발견되었고, 양성면의 철 생산 유적은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가금면 창동리 일대에 현재까지도 ‘쇠꼬지’, ‘쇠삐루’ 등과 같은 지명이 남아있는 점도 흥미롭다. 꼬지와 삐루는 모두 벼랑, 낭떠러지 등을 의미하는 말로 남한강에 인접한 창동리 일대의 바위 벼랑에는 지금도 검붉은 녹물이 흘러내린 흔적들이 확인된다.¹¹ 창동리에서는 근래까지도 철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이 운영되었다.

Ⅲ. 남한강 유역 고려전기 불상의 다양성

남한강 유역의 고려전기 불상들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에 그 특징에 따라 크게 통일신라의 계승과 고려전기 양식의 공존, 중국 요대 신도상의 유입, 독창적 불상양식의 형성이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통일신라의 계승과 고려전기 양식의 공존

가장 먼저 주목되는 특징은 남한강 유역에서 통일신라의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상들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상들은 착의법에 따라 다시 편단우견 유형과 통견 또는 편삼에 대의를 걸친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삽도 1).

편단우견의 착의법을 하고 있는 상들은 광주 〈하사창동 출토 철불좌상〉, 양평 〈사나사 철불좌상〉, 충주 〈백운암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불좌상〉 3구로서 항마촉지인의 수인에 편단우견의 착의법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당당한 체구와 근엄한 표정, 불과 턱에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 특징인데, 이런 표현은 석굴암 본존불에서 나타나는 통일신라 8

⁹ 충주박물관, 『충주 이류면 야철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6). 현재까지 충주지역에서 야철유적으로 조사된 곳은 모두 77개소이며, 그 중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유적은 53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발굴된 유적은 완오리 유적과 칠금동유적, 가르멜(1) 야철지, 깃대뿔 야철지 등 5곳 뿐이다.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다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야철지와 관련된 유적 역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¹⁰ 세연철박물관, 『충북 음성군의 야철지 충주시 양성면의 야철지』(200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1), pp. 67-74.

¹¹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혜안, 2014), pp. 72-75.

세기 전통적인 양식의 계승으로 파악된다.¹²

삼도 1 통일신라 전통양식의 계승

1. 편단우견 유형			
			
〈석불좌상〉, 통일신라(8세기), 경주 석굴암	사나사 철불좌상	백운암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불좌상

2. 통견 또는 편삼유형			
			
〈석불좌상〉, 통일신라(9세기), 예천 청룡사	봉산동 석불좌상	일산동 석불좌상	포초골 미륵좌불

두 번째는 통견 또는 편삼 위에 대의를 걸친 형식이다. 이로 인해 내의를 묶은 띠와 띠 매듭이 표현되어 있어 편단우견 형식과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원주 〈본저전동 출토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 여주 〈포초골 미륵불〉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원주와 여주 지역의 상들로서, 촘촘한 간격의 흘러내리는 듯한 옷주름이 특징이다. 이러한 착의법은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을 비롯한 9세기 경상북도 지역의 불상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의 상들은 석굴암 본존불로 대변되는 통일신라 8세기 불상형식과, 경상북도

¹² 광주 하사창동 출토 철불이 석굴암 본존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논문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최성은, 앞의 논문(1995), pp. 27-45; 최성은, 앞의 논문(1996), pp. 22-25.

지역에서 조성된 9세기 상들을 계승하고 있다. 남한강 유역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고려전기에 이르러 통일신라의 불상양식이 이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남한강 유역에는 전통형식과 더불어 인근인 충청도 지역의 불상과 연관되는 석불입상들도 전 지역에 걸쳐 활발하게 조성된다. 이 지역의 석불입상은 얼굴 형태를 비롯해 수인, 옷주름 등의 세부표현에서 지방화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상들은 방형이나 원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를 저부조로 표현한 경우가 많으며, 큰 귀는 어깨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의 경우가 가장 많고 지물을 쥐고 있으며, 옷주름을 비롯한 세부표현들은 몇 줄의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생략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관촉사 석불입상>이나 <대조사 석불입상>의 경우처럼 10m 이상의 대형으로 조성되는 충청도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3m 이하로 크기가 작고 조각수법도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도 5).

이런 형태의 석불입상은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건국 초부터 확인되는 대표적인 조상 형태이다. 고려 태조가 940년에 논산에 조성한 <개태사 삼존불상>을 비롯해서 <관촉사 석불입상> 등 대형 석불입상들이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조성되었음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즉, 석불입상이 남한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조성된 것은

고려 건국 초기에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조성된 석불입상의 머리 위에 방형이나 다각형의 보개를 얹고 있는 점 역시 예산 <삼교 석불입상>, 당진 <안국사지 석불입상> 등 충청도 지역의 석불입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도 6).



도 5 석조보살입상, 고려전기 (968년경), 돌, 상높이 1780cm 어깨너비 400cm, 논산 관촉사



도 6 안국사지 석불입상, 고려전기, 돌, 상높이 580cm, 당진 안국사



도 7 포천 출토 철불좌상, 고려전기, 철, 상높이 133cm 무릎너비 104cm, 국립중앙박물관(『삼매와 평담미』, 도4)



도 8 傳 적조사지 철불좌상, 고려전기(937년 추정), 철, 개성 고려 박물관(『조선유적유물도감』11, 도530)

마지막으로 남한강 유역에는 고려의 중앙양식으로 대변되는 개경 지역과의 교류가 엿보이는 상도 남아 있다. <포천 출토 철불좌상>은 높은 육계와 둥근 얼굴의 표현이 특징적으로,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하였다(도 7).

착의법과 관련해서는 대의깃이 왼쪽 어깨에서 접혀 반전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937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傳 적조사지 철불좌상>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도 8). 두 상은 결가부좌한 발목 부분에서 모아진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표현하거나, 양쪽 무릎 부분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수직 방향의 옷주름을 표현한 점 역시 동일하다. 다만, <포천 출토 철불좌상>은 <傳 적조사지 철불좌상>에 비해 얼굴의 양감이 줄어들고 이목구비의 표현도 단순해졌으며, 무릎의 높이는 낮아지고 너비는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세장한 느낌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세부표현이 단순해지고 전체적으로 양감이 줄어들며 세장해지는 것은 <포천 출토 철불좌상>이 <傳 적조사지 철불좌상>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 9 장성리 석불좌상, 고려전기, 돌, 상높이 87cm, 충주박물관

2. 중국 遼代의 신도상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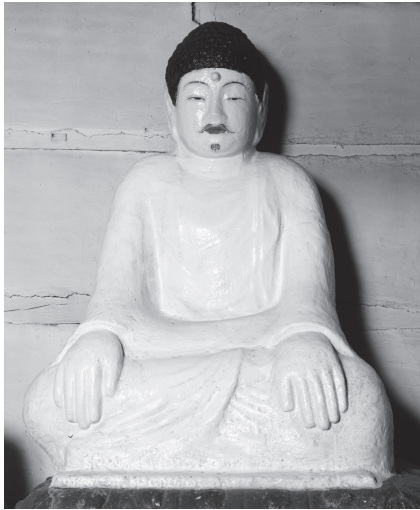
남한강 유역에서 조성된 고려전기 불상 중에는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도상이 유입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충주 <장성리 석불좌상>



도 10 동계관불, 요(11세기), 황동, 내몽고 적봉박물관



도 11 석가불도, 요(1056년), 비단, 산서성박물관



도 12 석불좌상, 고려, 돌, 상높이 133.7cm
무릎너비 107cm, 칠곡 용화사

상)은 양손을 모두 무릎에 얹은 채 손등을 위로 향하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도 9). 이런 형태의 수인은 통일신라 불상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어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도상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두 손을 무릎에 대고 있는 동일한 수인은 11세기 이후 중국 遼代에서 제작된 불상 및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내몽고 적봉박물관에 소장된 <동계관불>의 본존불이 두 손을 모두 무릎 위에 얹고 있으며(도 10), 산서성 응현의 불공사목탑에서 출토된 <석가불도> 역시 같은 수인이다(도 11). 특히 불공사목탑에서 출토된 <석가불도>는 그 좌우측에 세로로 ‘南無釋迦牟尼佛’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요에서는 두 손을 무릎에 댄 수인의 불상을 석가모니불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손을 무릎에 댄 수인”을 하고 있는 고려시대 불상은 <장성리 석불좌상> 외에도 칠곡 <용화사 석불좌상>, 대전 <상대동 석불좌상>, 나주 <죽림사 석불좌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구가 확인되는데 고려와 요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는 단면으로 생각된다(도 12).

고려와 요의 관계는 942년 만부교사건이라든지 943년 훈요십조에 등장하는 “禽獸의 나라”라는 용어들로 미루어 10세기에는 관계가 적대적이었고, 그 후 993년부터는 요의 3

차 침략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현종대(1009~1031)의 화평 이후부터 1116년에 요의 연호 사용을 중지하기까지 약 100년 간 두 나라 사이에 매년 이루어진 상시적인 사신왕래와 더불어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고려보다 요가 宋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었다.¹³ 대장경을 비롯한 관련 서적류의 교류도 활발했다. 특히 불교서적들은 하사품의 형식을 띠기도 하고 사신들이 私적으로 고려에 전해주기도 하는 등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고려에 전해지고 있었으며, 반대로 고려에서 간행된 장소류가 다시 요에 전해지기도 하였다.¹⁴ 이때의 교류는 국가의 공식적인 교류 이외에도 사행무역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의천의 장소 수집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천은 장소 목록인 『總錄』의 저술을 1090년(선종 7)에 완성하는데, 여기에는 요의 장소 이름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요의 대장경을 받아들인 고려에서는 초조대장경의 조판에 이를 활용하기도 했고, 이후 『高麗再雕大藏經』이 간행될 때(1236~1251년) 주된 對校本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¹⁵

요대 불교조각과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관계는 일찍부터 주목되었는데, 긴밀한 관계 속에 요의 불보살상 양식이 고려에 유입되었음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¹⁶ 특히 강원도 지역의 고관보살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 강원도 고성 출토 〈석조여래좌상〉, 〈석조나한상〉 등 주로 수도 개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에서 요와 관련된 불상들이 확인된다.¹⁷ 이는 육로를 통해 개경까지 요의 사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왕래한 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경에 수용된 요의 도상이 남한강 유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¹³ 11세기 요와 고려와의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 현종대(1009~1031)부터 예종대(1106~1122)까지 고려는 朝貢44회를 비롯해 총 142회 간 것에 비해 요는 가장 많은 것이 賀生辰을 하기 위한 것을 비롯해 橫宣, 冊王 등의 명목으로 총 180회 왔으며, 문종 때 65회로 가장 많이 왔다. 고려와 요의 교역 중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목종8년(1005)부터 현종 즉위년까지 개설된 保州(義州)樵場이다. 이 교장은 互市의 성격이어서 상호 특산물을 교환·구매하는 장소로 원자재뿐 아니라 생활기명도 교역되었다. 안귀숙,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고려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4), p. 157.

¹⁴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연구」, 『史林』 25(2006. 6), p. 145.

¹⁵ 김영미,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와 요의 관계와 불교 교류」, 『역사와 현실』 43(2002.3), pp. 24-35; 유부현, 「高麗再雕大藏經에 收容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2004. 6), p. 73.

¹⁶ 특히 東京(현재의 요녕성) 지역은 정기적인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요와 고려 사이에 처음으로 국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긴밀한 지역이었다. 동경 요양백탑의 감실 불좌상의 양식이나, 원통형 보관을 쓴 보살상 양식은 고려전기 11세기에 고려로 유입되어 고려후기, 조선전기까지 계승되었다. 정은우, 「遼代 佛教彫刻의 研究(II)」, 『미술사연구』 14(2000. 12), pp. 91-95.

¹⁷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2010.3), pp. 44-45.

3. 독창적 불상 양식의 형성

남한강 유역의 불상들은 각 지역마다 따라 독창적인 형태의 상들을 조성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원주와 충주의 불상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창적인 모습을 보인다.



도 13 봉산동 석불좌상, 고려전기, 돌, 전체높이 175cm, 원주역사박물관

먼저, 원주의 대표적인 예는 <봉산동 석불좌상>이나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 등이다. 다른 지역의 상들과 비교해 보면 옷주름 간격은 더 촘촘해지고, 발목 부분에서 이중형태의 옷자락이 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화려하고 장식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도 13). 이런 장식적인 특징은 옷주름 표현 외에도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을 비롯해 여주 지역 불상에서 나타나는 가사끈 장식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포초골 미륵좌불>, <도곡리 석불좌상>은 모두 우측 어깨에

삼도 2 가사끈 장식의 사례

상 전 체				
세 부				
	원주 출토 철조약사불좌상	여주 계신리마애여래입상	여주 포초골 미륵좌불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

가사끈이 표현되고, 가사끈으로 인해 옷자락 끝단이 세모꼴 형태로 접힌 것도 유사하다. 가사끈의 표현은 통일신라 8~9세기 불상에서 등장하는데, 고려전기의 불상 가운데 남한강 유역에서는 원주와 여주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히 흥미롭다. 불상에서 장식성이 강한 점은 원주와 여주 지역의 특징으로 생각된다(삽도 2).

또,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이나 <본저전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예처럼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 조성되고, 동일한 형태의 불상이 2구씩 함께 조성되는 점 역시 주목된다(도 14). 남한강 유역에서는 원주를 제외하고는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2구씩 함께 봉안되는 점 역시 원주 지역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지권인을 결한 2구의 불상이 함께 조성되는 형태는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조성된 합천 <해인사 대비로전 비로자나불좌상> 2구(도 15),¹⁸ 부석사 자인당에 봉안되어 있



도 14 본저전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전기, 돌, 전체높이 250cm, 국립춘천박물관



도 15 대비로전 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883년), 나무, (좌)상 높이 127cm 무릎너비 97.2cm (우)상높이 124.8cm 무릎너비 96.5cm, 합천 해인사

¹⁸ 해인사 대비로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는 2구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각각 대적광전과 법보전에 따로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2005년에 법보전에 봉안되어 있던 비로자나불좌상의 내벽에서 목서로 쓰여진 연기문이 발견되었는데, 목서명은 다음과 같다. “誓願大角干主(?)燈身賜彌右座妃主燈身□,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남풍현은 이 목서를 검토해, 中和3年(883)에 조성된 불상은 2구였고, 이 불상들을 좌우에 나란히 봉안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2006. 8), pp. 235-236.



도 16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9세기), 돌, (좌)상높이 99cm 무릎너비 76.5 (우)상높이 100.3cm 무릎너비 81cm, 영주 부석사

는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2구가 알려져 있다(도 16).¹⁹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 조성되는 것은 화엄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인사는 哀莊王 3년(802)에 義湘의 4세 법손인 順應에 의해 창건되었다. 일찍부터 華嚴十刹에 속한 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 이름의 海印 또한 『화엄경』의 “海印三昧”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화엄 사상과 신앙의 전파를 목적으로 창건한 절이

었다.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浮石寺는 의상이 국가의 명을 받아 창건하였고, 의상 이후에도 浮石嫡孫으로 불리는 손제자 神琳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신림이 8세기 중엽 부석사에 천 여 명을 모아놓고 『華嚴教分記』를 강의하는 등 의상 이후에도 부석사는 의상계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원주지역의 화엄종과 관련해서 가장 일찍 사료에 등장하는 기록은 『三國遺事』권4, 義湘傳敎로서 화엄 10찰 중에 원주 毗摩羅寺가 등장한다.²⁰ 비마라사 역시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의상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마라사가 위치한 大華山에는 의상의 손제자 神琳이 주석했던 世達寺가 동쪽으로 10km 정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자리한 세달사와 비마라사에는 모두 의상의 화엄 사상이 전수되고 구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달사에는 의천 당시까지 의상대사와 신림의 진영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²¹ 신림이 부석사의 의상 화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명망이 높았고, 한 때 세달사에 주석했

¹⁹ 원주 <일산동 석불좌상>,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해인사 소장 <비로자나불좌상> 2구는 신체비례, 착의법, 얼굴을 비롯한 세부표현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상들의 실측 수치를 비교하면 상높이, 무릎폭의 차이가 각각 1~3cm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봉안의 형태는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이 폐사지에서 함께 발견되었던 것처럼 한 사찰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각이나 별도의 공간에 함께 봉안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²⁰ 비마라사의 위치는 영월군 남면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경계에 있는 大華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행정구역상 비마라사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비마루이다. 김성찬, 「원주 비마라사지 위치고」, 『박물관지』 7(1998. 12).

²¹ “浮石寺禮想師影·興敎寺禮神琳祖師影”. 義天, 「大覺國師文集」권18, 『韓國佛教全書』4(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p. 560.

을 뿐만 아니라 신림에 대한 존경은 고려 의천 때까지도 이어졌다.²² 또 신림에게 사사받은 순응이 해인사를 창건하였고, 이곳에도 역시 2구의 지권인 불상이 봉안되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해인사, 영주 지역(부석사), 원주 지역이 모두 의상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신림 및 순응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주지역의 화엄사상은 일찍부터 의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특히 의상의 화엄사상을 계승했고 부석사의 방장을 맡기도 했던 신림이 원주 지역의 세달사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고려전기 원주 지역에서 대규모 선종사원이 건립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화엄사상이 신봉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한강 유역의 고려전기 불상 중 원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권인을 결한 불상이 남아있는 예가 없다는 점을 볼 때, 해인사와 영주 지역에서 조성된 2구의 지권인 불상과 원주 지역에서 조성된 지권인 불상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³

독창적인 지역색은 충주 지역의 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단호사와 대원사 철불좌상은 이목구비가 중앙에 몰려있고, 눈을 굴곡지게 표현해 눈꼬리 부분이 치켜 올라가있다. 착의법은 두터운 통견을 걸친 형식으로, 두 손은 모두 보수되어 정확한 수인은 확인할 수 없다. 충주의 두 상에서 볼 수 있는 얼굴표현과 도식적이고 경직된 모습 역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불상 표현으로 조성시기는 비교적 후대인 12세기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남한강 유역 고려전기 불상의 다양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분포지역과 제작 시기를 검토해 보면,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불상은 광주와 양평, 포천 등 개경과 가까운 남한강 하류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며 제작 시기는 10세기경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충청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는 석불입상은 남한강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며 주로 11세기 이후의 작품들로 추정된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12세기 이후 원주와 충주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는 지역성이 강한 독창적 불상들이 제작된다. 이 상들을 끝으로 더 이상 두 지역에서는 불상조성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고려후기 덕흥창과 흥원창이 쇠퇴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김혜완, 「신라시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사림』 21(2004. 6), pp. 4-6.

23 지권인을 결한 2구의 불상을 함께 봉안하는 형태는 나중에 80화엄에서 제기된 비로자나 三身佛의 개념과 연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상이 모두 지권인을 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法身과 色身을 별개의 부처로 구분해 조성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二身 형태의 지권인 불상 조상은, 후에 비로자나 三身佛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양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IV.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배경과 특징

1. 선종사원의 건립과 조운

남한강 문화권의 형성배경과 관련해 주목되는 고려 왕실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 선종사원을 건립하고 선승을 주지로 파견해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남한강 유역에 사원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시기는 주로 고려 건국 초기인 924년 이후로 왕실에서 직접 선승을 포섭하고 주지로 임명하거나, 사후에 탑비를 건립하고 대규모 중창을 지원하는 양상을 띤다. 고려 왕실에 의해 남한강 유역의 사원에 주석하게 되는 대표적인 승려들로는 양평 보리사의 麗嚴, 충주 정토사의 玄暉, 원주 흥법선원의 忠湛, 광주 천왕사와 여주 고달원에서 주석했던 璨幽등이다. 영월 흥녕선원의 折中은 900년에 이미 입적했지만 944년에 고려왕실에서 직접 탑비를 건립하였다.²⁴

대경대사 여엄(862~930)은 909년에 중국 유학을 마치고 武州 昇平으로 귀국하고 동쪽으로 가서 충주 월악산에 이르렀는데, 세상이 시끄러워 평안히 연좌할 곳이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月岳, 基州 등 소백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풍기호족 康公萱이 고려에 귀부하자 강공희의 건의로 개경에서 태조를 만나게 된다. 태조는 여엄에게 개경과 가까운 지평(양평) 보리사를 하사하여 주석하게 하였다.²⁵

법경대사 현휘(879~941)는 906년에 入唐하였다가 924년에 신라로 귀국한다. 태조는 곧바로 현휘를 개경으로 맞이하여 國師로 대우하고 친근한 곳을 구하여 中州(충주) 淨土寺에 머물도록 하였다. 정토사에 주석한 이후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후에는 안개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단적인 예로 현휘의 나이 46세에 정토사에 주석한 이후 조정인사들의 방문 건수가 수천 건이었다고 전한다.²⁶

진공대사 충담(869~940)은 신라 귀족출신으로 당시 곳곳에서 병란이 일어나자 入唐

²⁴ 이외에도 태조의 청으로 개경 흥왕사에 주석하게 되는 廣慈大師 允多(864~945)와 개경 사나내원에 주석하게 되는 靜眞大師 兢讓(878~956)의 사례가 있다. 흥왕사는 화엄종의 총본산이었기에 선종사원의 범주에서는 벗어나지만, 주석의 의도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나내원에 주석한 공양의 경우 귀국 후 문경 봉암사에 머무르며 고려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태조와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중원부에 위치한 鍊珠院의 원주인 芮帛이었다. 이인재, 「선사(禪師) 공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한국사연구』 131(2005. 12), pp. 165-190.

²⁵ 李智冠 譯註, 「砥平 菩提寺 大鏡大師 玄機塔碑文」, 『歷代高僧碑文』2 : 高麗篇1(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p. 66.

²⁶ 李智冠 譯註, 위의 글, pp. 181-182.

했고, 918년에 귀국해 스승 심희가 있는 김해로 간다. 이후 김해가 견훤군의 침입으로 전운이 감돌자 개경으로 떠나게 되는데, 태조는 충담을 王師로 맞이하고 원주 흥법선원을 다시 일으켜 주석하게 하였다.²⁷

원종대사 찬유(869~958)는 881년에 고달원의 심희 밑에서 출가하였다가, 892년에 入唐해서 大同和尚에게 수학하였다. 921년에 강주 덕안포로 귀국해 봉림사에서 스승 심희를 다시 만나는데, 923년에 심희가 입적하자 그 다음해인 924년에 스스로 왕건을 찾아가고 있다. 태조는 이런 찬유를 맞아들여 廣州 天王寺에 주석하도록 하였지만, 천왕사에 머무른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스승 심희 밑에서 출가했던 여주 고달원으로 거처를 옮긴다.²⁸

이와 같이 선승들은 태조 등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한강 주변의 사원에 주석하였는데, 고려왕실의 이런 선승포섭은 영향력 있는 승려들을 자신의 주변에 포진시킴으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사원에서는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각종 명목의 佛事가 행해졌기 때문에 사원의 장악은 필수적인 과제였다.²⁹

또한 대규모 사원에 주지로 임명되어 파견된 선승은, 지방관의 상주가 없었던 고려 통일 직후의 시점에서 지방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사찰의 건립과 佛事を 통해 어떤 형태로 지방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했는지는 고려 건국 초부터 등장하는 裨補寺社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³⁰ 비보사사는 사찰을 지방제의 편성원리에 맞추어 부곡제의 村莊인 寺莊을 지배 또는 운영하면서 사찰의 불교문화를 주도하였다. 비보사사는 田과 民을 함께 분급 받았고, 주군의 속현과 향·부곡과 장치에는 외관이 파견된 바 없으므로, 土姓吏民인 향리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사찰의 주지는 향리와 더불어 촌장을 지배 또는 운영하였을 것이다. 사원의 村莊인 寺莊에는 재가화상이나 隨院僧徒가 있었으며, 사장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재가화상이나 수원승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비보사사에 소속되어 국가의 공적인 일이나 마을의 일에 동원되기도 했고, 국가의 불사 및 불교행사 등에 참여하였

²⁷ 李智冠 譯註, 앞의 글, p. 138. 충담이 흥법선원에 주석하게 되는 시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충담의 나이 59세(924년)에서 69세(934년) 사이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인재, 「나말려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2001, 2), p. 212. 이 견해를 따른다면 충담은 적어도 7년 이상의 기간을 흥법선원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²⁸ 李智冠 譯註, 앞의 글, p. 20.

²⁹ 김형수, 「高麗前期 寺院田經營과 隨願僧徒」, 『한국중세사연구』 2(1995, 2), p. 76.

³⁰ 고려시대의 주요사찰은 국가의 裨補寺社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비보사사는 태조 왕건이 왕조를 창업하면서 道誥의 설을 빌어서 설정한 것이며, 조선 태종 때에 사사 혁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보사사로 지정된 사찰은 전국적인 규모였으며, 그 숫자가 대략 3000 여개에 달하였다. 황인규, 「고려 비보사사의 설정과 寺莊운영」, 『동국역사교육』 6(1998), pp. 47-78.

다. 그리고 이들은 전란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마을의 공동체 결사인 향도를 이루면서 향촌의 사회를 주도해나갔다.³¹

즉, 남한강 유역에 왕실에서 의도적으로 선승을 주지로 파견함으로써 이 지역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정치적 의도는 대경대사 여엄의 비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엄이 소백산 풍기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태조가 개경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를 들며 남한강 유역의 양평 보리사에 주석하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는 고려왕실이 남한강 유역에 선승들을 주지로 파견한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려왕실에서 남한강 유역에 지배력을 행사한 것은, 중요한 수취체제였던 조운의 성립과 시행이라는 측면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는 조세 운송방식으로 선박을 이용한 조운제가 처음으로 운영된 시기이며 남한강의 수로 역시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었음은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³² 『高麗史』에는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國初”라고만 적고 있어 해석에 따라 조운의 성립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고려의 건국과 멀지 않은 시점에 조운제가 완성되고 운영되면서 국가경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운제는 “國事之中最重”으로 표현될 정도로 봉건왕조에서 중요한 관제였고, 그만큼 고려시대 경제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설치된 13개의 조창 중 대부분이 연안해로에 형성된 것과 다르게 내륙수운을 이용해 조세를 운반한 것은 남한강에 위치한 충주의 덕흥창과 원주의 흥원창 단 2곳 뿐이다.

덕흥창은 충주 서쪽 10리 金遷 서쪽 언덕의 麗水浦에 위치하며, 조창 중 그 수세구역이 가장 광범위했던 곳이다. 수세구역 대부분은 소백산지 남쪽의 경상도 지역으로, 鷄立嶺과 竹嶺을 이용해 덕흥창까지 조세를 운반하였다. 흥원창은 蟾江이 횡성과 원주 서쪽을 지나 남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수세구역은 양광도 충주목의 지사와 원주 관내이다. 平丘道를 통해 丹丘驛이나 치원역(원주)을 거쳐 섬강을 따라 흥원창으로 조세를

31 수원승도와 재가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거처할 집을 자신이 만들고 아내와 사는 승도였다. 그들은 공상이 있을 때 기물을 나르고 도량을 내며 성이나 집을 수축하는 일에 종사하며, 변경에 정보가 있으면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다.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국학자료원, 2011), pp. 340-354.

32 『高麗史』에는 태조 왕건이 벽진군 출신 李愔言이 귀부하여 오자 “忠·原·廣·竹·提州 등의 倉穀 2,200석과 소금 1,785석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충주, 원주, 광주, 죽주(안성), 제주(제천) 등지에 대규모의 곡창과 염창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들은 남한강 수운에 있어 주요 기항지로, 수로와 육로가 합쳐지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高麗史』권92, 列傳 王順式傳.

운반하였다.³³ 덕흥창과 흥원창의 설치 및 그 수세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운 및 육상 교통로이다. 그리고 조운을 통한 경제력이 충주와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강 유역에 집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대규모 선종사원을 건립하고 조운을 위한 교통망을 완성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고려왕실의 의도화된 요충지였다. 이런 정치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인접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었고, 더불어 활발한 불상조성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종사상의 변화와 도상 수용

철불은 통일신라 하대 선종사원에서 조성된 불상의 재료적 특성이다. 대표적인 사원은 洪陟(생몰년 미상)과 秀澈(815~893)의 남원 실상사(실상산문), 行寂(832~916)의 삼척 삼화사, 體澄(804~880)의 장흥 보림사(가지산문), 無染(800~888)의 보령 성주사(성주산문), 道憲(824~882)의 문경 봉암사(희양산문) 등이다. 선종사원으로 신라왕실과 호족세력의 대규모 후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의 상황과 비교



도 17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858년), 철, 상높이 283cm 무릎너비 210cm, 장흥 보림사

된다. 이 사찰들에서 조성된 철불들은 대부분 지권인 또는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다. 858년에 조성된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지권인을 결하고 있고, 9세기에 조성된 삼척 <삼화사 철불좌상>은 시무외·여원인 계통의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상의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존명이 노사나불임이 밝혀졌다. 또 남원 <실상사 철불좌상> 역시 시무외여원인의 수인을 결한 노사나불로 조성시기를 840년~856년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³⁴ 보령 성주사의 경우도 부여박물관에 소장된 철불편과 기록자료에 의해 철불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손가락 편을 통해 시무외·여원

³³ 한정훈, 「고려시대 13조창과 주변 교통로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23(2007. 10), pp. 155-160.

³⁴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2013.3), pp. 71-100.

인의 수인으로 추정하였다.³⁵ 문경 봉암사 역시 흑백사진을 통해 한국전쟁 중 파손되기 전 까지 철불좌상 1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지권인이나 시무외·여원인을 결한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 다수 조성된 배경으로는 신라하대 선종사원과 화엄종의 밀접한 관계가 주목된다. 신라하대 선종 승려들이 화엄종을 접하고 교종사찰에서 구족계를 받은 점, 그리고 화엄교학을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은 것이다.³⁶

반면 남한강 유역의 고려전기 철불은 모두 11구로, 그 중 양평 <사나사 철불좌상>, 충주 <백운암 철불좌상>, 광주 <하사창동 출토 철불좌상>, <포천 출토 철불좌상>, <원주 출토 철불좌상> 3구 등 7구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이다. 통일신라 하대에 선종사원을 중심으로 비로자나불(노사나불)이 주로 조성된 것과 달리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에서는 다수의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려전기 다른 지역에서는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과 같이 지권인을 결한 철불들이 조성되는데 반해 이 지역에서는 지권인을 결한 철불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도 18).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에서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 도상이 유행한 원인에 관해서 정확히 규명할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남한강 유역의 철불들 대다수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 제자리를 떠나 박물관으로 수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봉안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선종사원과 후원세력, 나말여초 선종 사상의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말여초에 형성된 선종산문의 개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9산 이외의 산문 역시 존재했고 그 사세 역시 9산산문에 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도 18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 철, 상높이 142.9cm 어깨너비 64.5cm, 해남 은적사

³⁵ 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1999. 3), pp. 94-97.

³⁶ 강건우, 앞의 논문, pp. 81-82.

제기되고 있다.³⁷ 고려 말 沖止에 의해 집성된 『禪門祖師禮懺文』에서 언급하고 있는 9산산문은 가지산문, 사굴산문, 사자산문, 성주산문, 봉림산문, 동리산문, 실상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이다. 이들 중 고려전기 이엄에 의해 개산된 수미산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신라 하대에 왕실 및 지방 호족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산문이다.³⁸ 그리고 『선문조사예참문』의 9산산문 이외에도 산명과 사원명 및 지역명과 주석자 이름이 분명히 확인되는 선종사원은 원주 월암산 월광사, 영풍 명봉산 경청선원, 영주 소백산 비로암, 해주 오관산 서운사, 양평 미지산 보리사, 원주 영봉산 흥법사, 충주 개천산 정토사, 여주 혜목산 고달원 등이다. 이들 사원은 9산산문에 필적하는 사세를 지녔다.³⁹ 특히 남한강 문화권에 해당하는 양평, 원주, 충주, 여주 지역의 선종사원들은 이 시기에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중창 불사 등이 진행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통일신라 하대에 형성된 9산산문 중심의 선종사원과 고려전기 남한강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선종사원은 각각 통일신라 및 고려 왕실이라는 다른 지원세력의 후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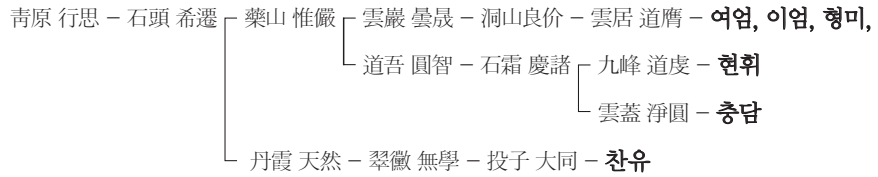
그리고, 주석한 선승들의 사상 또한 통일신라 하대와 고려전기 선종사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말여초 선종사원의 선승들 상당수는 入唐유학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선사의 법인을 받아 귀국하였으며 이후 왕실과 결합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통일신라 하대의 선종사원들 중 실상산문의 흥척, 가지산문의 도의, 동리산문의 혜철은 유학길에 올라 모두 西堂 智藏에게서 법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주산문의 무염은 麻谷 寶徹, 사자산문의 도운은 南泉 普願, 봉림산문의 현옥은 章敬 懷暉, 사굴산문의 범일은 鹽官 霽安에게서 각각 법인을 받았다. 희양산문의 도현은 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스승인 혜소가 滄州 神鑑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법인을 받은 지장, 보철, 보원, 회휘, 제안, 신감은 모두 馬祖 導一(709~788)의 법맥을 이은 선승들이다.

반면 수미산문을 개산한 이엄을 비롯해, 여엄(양평 보리사), 현휘(충주 정토사), 충담(원주 흥법선원), 찬유(광주 천왕사, 여주 고달원) 등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에서 활동했던 선승들은 중국 유학길에 올라 모두 靑原 行思(?~740)의 문하에게서 법인을 받아오고 있어 마조 도일의 법인을 계승하고 있는 통일신라 하대의 선승들과 차이를 보인다. 『祖堂集』 및 선사비문들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청원 행사계 법맥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37 허홍식,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고려불교사연구』(일조각, 1990), pp. 224-274.

38 희양산문의 경우 개산자인 도현의 법손인 공양(878-956)이 활동하던 고려전기에 이르러서야 남종선으로 변화하며 비로소 대규모 산문을 형성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39 고영섭, 「신라 중대의 선법 전래와 나말 러초의 구산선문 형성」, 『신라문화』 44(2014, 8), pp. 211-212.



여엄은 운거 도응, 현휘는 구봉 도건, 충담은 운개 정원, 찬유는 투자 대동에게서 법인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청원 행사의 법맥을 잇고 있다. 법맥의 계보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선종 사상의 차이와도 연결되는데 마조 도일의 법문이 개인주의적인 祖師禪의 건립에 주력하였다면, 청원 행사의 법문은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절충하려는 교선교섭 사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⁰ 이런 청원 행사의 사상을 이은 여엄, 현휘, 충담, 찬유는 모두 교종과 선종을 함께 닦으려는 사상적 경향을 보인다. 여엄은 조사선 사상을 심화하면서 다음 단계로 교선융합 사상을 모색하며 眞宗禪의 경지를 추구했고, 현휘는 선을 닦으면서 아울러 문수의 지혜에 접할 것을 주장하며 교학의 수행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충담은 선종에 심취한 후에도 법상종이나 율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수행을 강조했고, 충담 역시 대동에게 선을 배운 뒤 중국 각지를 다니면서 천태사상을 배우기도 하는 등 교선교섭의 사상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⁴¹

이러한 교선교섭의 사상 경향은 남한강 유역의 선종사원을 후원했던 고려 왕실의 의도에 부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위의 지방 호족세력을 통합하려는 호족연합 정책과 연관되어, 연립적인 통일정책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다. 실제로 고려 왕실의 교선교섭 사상에 관한 관심은 고려 태조의 先代 때부터 인연이 깊은 了悟 順之(832~896)와의 관계에서부터 확인된다. 순지는 858년에 입당해 仰山 慧寂(807~883)에게 수학하고 874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 때 순지의 귀국을 접한 태조의 선대 용건 모자는 그를 오관산 용암사로 초청해 사원을 경영하게 하고, 사원명도 곧 瑞雲寺로 바꾸게 된다. 순지의 독자적인 선사상으로 평가되는 삼편성불론은 화엄경과 법화경 사상을 융합한 교선교섭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후 순지는 진성여왕의 부름을 받고 경주에 가서 설법을 하는 등 통일신라 왕실과의 긴밀한 교류 속에 896년에 입적하고, 효공왕대에 비문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존하는 비는 중수비로 비문의 후기는 고려왕실에서 937

⁴⁰ 김두진, 「나말여초의 선종산문과 그 사상의 변화」, 『新羅文化』 27(2006. 2), p. 126.

⁴¹ 김두진, 위의 논문, pp. 122-129; 김용선, 「玄眞·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2006. 10), pp. 133-134.



도 19 보원사지 철불좌상, 고려전기(949년 추정), 철, 상높이 259cm 무릎너비 214cm, 국립중앙박물관(『삼매와 평담미』, 도2)

년에 왕건 선대의 국휘를 수정하여 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순지의 비편이 발견되어 오관산 서운사의 터로 추정되는 곳에 <傳 적조사지 철불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도 8). 상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로 937년에 중수비를 건립하고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행해지는 시점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철불은 고려왕실의 후원 속에 항마촉지인 철불이 조성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포천 출토 철불좌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려왕실의 항마촉지인 철불 조성과 관련해 단서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垣文(900~975)에 의해 949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 <보원사지 철불좌상>이다(도 19).

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만, 보원사지에 남아있는 『法印國師寶勝塔碑』(978)를 통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탄문은 광종이 즉위하자 왕의 만수무강을 위해 “釋迦三尊金像”을 주조하였다고 하며⁴³ 이 불상을 현재의 보원사지 철불로 추정하는 것이다.⁴⁴ 탄문은 일찍부터 고려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후에 왕사와 국사에도 임명된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화엄종 승려이다. 태조의 청으로 당시 화엄종 최고 승려인 희랑선사를 만나 인정을 받았다는 비문의 내용, 九龍山寺에서 화엄경을 강의할 때에는 새가 날아들고 범이 뜰에 엎드렸다는 등의 이야기는 화엄종 승려 탄문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보원사가 의상의 화엄십찰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화엄종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이 아닌 석가모니불을 조성하는 점은 흥미롭다. 탄문의 이런 행보 역시 교선교섭의 사상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心傳에 더해 정전

⁴² 정동락, 「了悟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 14(2008. 12), pp. 121-162.

⁴³ 『法印國師寶勝塔碑』에 나오는 조상기록은 광종 즉위년(949)과 6년(955)의 2차례로, 즉위년은 ‘釋迦三尊金像’이라 했고, 6년은 ‘三尊金像’이라고만 하였다. 조상은 2차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현존하는 보원사상은 즉위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김혜완, 『普願寺鐵佛의 조상 - 고려 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史林』 14(2000. 12), pp. 22-23.

⁴⁴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 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 丈六鐵佛坐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41(1988. 6), pp. 1-31.

에 대한 이해를 넓혀 대반야경의 講主가 되기도 했고, 비문 첫머리에는 善根과 아울러 律敎를 갖춘 인물로 부각되었다. 975년에 보원사로 돌아올 때 교종과 선종의 승려 1000여명에게 영접을 받았다는 비문의 기록 역시 이런 그의 사상과 당시 보원사의 상황을 알려준다.⁴⁵ 탄문 역시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선종 사상을 융합하는 사상경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원사지 철불좌상>은 양식적으로 수인, 상호, 착의법, 주조방법 등 모든 면에서 남한강 유역의 <원주 출토 철불좌상> 3구와 유사해 그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⁴⁶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마촉지인을 결한 철불이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배경이나 현전하는 철불에 관해 설명해줄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다만 통일신라 하대와 달리 고려왕실과 결합한 선종사원이 건립되고 교선 융합적 사상경향을 지닌 선승들이 여기에 주석하게 되는 차이점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 속에서 종파적 한계를 넘어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남한강 유역에서 조성된 고려전기 불상의 특징과 그 조성배경을 후원자인 고려왕실과 禪僧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대규모 선종사원을 건립하고 조운을 위한 교통망을 완성하는 등 정치·경제적으로 고려왕실의 의도화된 요충지였다. 특히 충주와 원주에는 조세를 운반하기 위해 각각 덕흥창과 원흥창이 설치되는데, 고려시대 13개의 조창 중 海路를 이용하지 않고 내륙수운을 이용하는 것은 남한강이 유일하다. 이처럼 강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에 대규모 후원이 집중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때문에 남한강 유역에서는 고려왕실의 후원을 바탕으로 석불을 비롯해 철불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불상조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수의 철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점은 충주지역의 철 생산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⁴⁵ 김두진, 「현휘와 탄문의 불교사상」,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 연구』(일조각, 2006), pp. 402-405.

⁴⁶ <보원사지 철불좌상>이 조성된 949년은 탄문이 아직 구룡산사에 머무르며 화엄경을 강의할 때이다. 968년에 귀법사에 주석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구룡산사를 「福興寺景德國師墓誌銘」에 의거해 구룡산 북흥사로 비정한다면, 현재의 개성 인근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한강이라는 문화교통로를 바탕으로 주변지역인 경상북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불상양식이 유입되었음도 확인된다. 즉, 통일신라의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상들이 조성되기도 하고, 고려 전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충청도 지역의 석불입상 역시 남한강 유역에 수용된 것이다. 또한 개경과 외래의 불교문화 역시 유입되고, 원주나 충주를 중심으로는 2구씩 조성되는 지권인 불상을 비롯해 지역적인 특색이 남아있는 독창적인 형태의 상들 역시 조성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공존하는 것이 남한강 유역의 특징이다.

또, 이 지역에서는 통일신라 9세기에 선종사원을 중심으로 비로자나불이 조성되는 것과 달리,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 도상이 유행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후원세력과 선종사원의 결합이라는 동일한 배경에서 각각 지권인과 항마촉지인이라는 서로 다른 도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석하는 선승들의 법맥이 조사선을 추구하던 마조 도일계에서 교선교섭의 사상 경향을 띠는 청원 행사계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도상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만한 자료는 아직 없지만, 교선교섭의 사상이 후원자이던 고려왕실의 의지와 상통하였다는 데 주목해 화엄종임에도 석가모니불을 조상한 탄문의 예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런 도상의 수용과 변화에 있어 그 영향력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후원세력과 조상주체 중 어느 쪽의 의지에 따라 상이 봉안되었는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접근은 앞으로 더 개별적인 사례들을 파악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Key Words)_고려전기(高麗前期, Early Goryeo dynasty), 남한강(南漢江, Namhan River), 선종사원(禪宗寺院, Zen Buddhist Temples), 철불(鐵佛, Iron Buddhist Statue), 조운(漕運, The Marine Transportation for Taxation)

■ 투고일 2014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4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4일 ■

참고문헌

1. 사료

-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大覺國師文集』
『祖堂集』
「開城 福興寺 景德國師墓誌銘」
「開豐 瑞雲寺 了悟和尚眞原塔碑」
「驪州 高達院 元宗大師慧眞塔碑文」
「原州 興法寺 眞空大師塔碑文」
「砥平 菩提寺 大鏡大師玄機塔碑文」
「忠州 淨土寺 法鏡大師慈燈塔碑文」
「海美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文」

2. 저서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 연구』, 일조각, 2006.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혜안, 2014.
세연철박물관, 『충북 음성군의 야철지 충주시 양성면의 야철지』, 2003.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하나』, 하늘재, 2002.
이지관, 『歷代高僧碑文』고려편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_____, 『歷代高僧碑文』고려편3,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6.
임영애, 『교류로 본 한국 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충주박물관, 『충주 이류면 야철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1.
허홍식,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90.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3. 논문

-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3, pp. 71-100.

- 강우방, 「統一新羅鐵佛과 高麗鐵佛의 編年試論 - 忠南 瑞山郡 雲山面의 鐵佛坐像과 雲山面 普願寺址 丈六鐵佛坐像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41, 1988. 6, pp. 4-34.
- 고영섭, 「신라 중대의 선법 전래와 나말 러초의 구산선문 형성」, 『신라문화』 44, 2014. 8, pp. 187-216.
-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연구」, 『史林』 25, 2006. 6, pp. 113-149.
- 김두진, 「나말여초의 선종산문과 그 사상의 변화」, 『新羅文化』 27, 2006. 2, pp. 111-131.
- 김상현, 「九世紀 후반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006. 8, pp. 235-254.
- 김성찬, 「원주 비마라사지 위치고」, 『박물관지』 7, 1998. 12, pp. 23-40.
- 김영미,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와 요의 관계와 불교 교류」, 『역사와 현실』 43, 2002. 3, pp. 47-77.
- 김용선, 「玄豆·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0, pp. 111-139.
- 김춘실,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 6, 1999. 3, pp. 92-109.
- 김형수, 「高麗前期 寺院田經營과 隨願僧徒」, 『한국중세사연구』 2, 1995. 2, pp. 67-126.
- 김혜완, 「普願寺鐵佛의 조상 - 고려 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史林』 14, 2000. 12, pp. 3-63.
- _____,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 2004. 6, pp. 1-29.
- _____, 「나말러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한국고대사연구』 49, 2008. 3, pp. 257-292.
- 서영일, 「남한강 수로(水路)의 물자유동과 흥원창(興元倉)」, 『史學志』 37, 2005. 4, pp. 193-215.
- 안귀숙,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고려 미술의 대외교섭』, 2004, pp. 153-192.
- 유부현, 「高麗再雕大藏經에 收容된 契丹大藏經」,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004. 6, pp. 73-94.
- 이광희, 「충주지역의 고려시대 석불 연구」, 『역사와실학』 21, 2001. 12, pp. 5-46.
- 이인재, 「나말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 2, 2001. 2, pp. 195-220.
- _____, 「선사(禪師) 공양(誦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한국사연구』 131, 2005. 12, pp. 165-190.
- 임영애, 「元祐5年(1090)銘 原州 立石寺 磨崖佛坐像 小考」, 『講座美術史』 12, 1999. 3, pp. 195-211.
- _____, 「고려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미술사학연구』 228.229, 2001. 3, pp. 39-63.
- 정동락,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 14, 2008. 12, pp. 121-162.
- 정은우, 「遼代 佛教彫刻의 研究(II)」, 『미술사연구』 14, 2000. 12, pp. 63-97.
- _____,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3, pp. 43-71.
- 최성은, 「高麗初期 廣州鐵佛坐像 研究」, 『불교미술연구』 2, 1995. 7, pp. 27-45.
- _____, 「나말러초 중부지역 철불의 양식 계보」, 『講座美術史』 8, 1996. 1, pp. 21-35.
- _____, 「高麗初期 抱川出土 鐵佛坐像 研究」, 『美術資料』 61, 1998. 11, pp. 4-23.
- _____, 「原州地域의 高麗時代佛教彫刻-나말러초 석불과 철불을 중심으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과 불교문화』, 2004, pp. 32-42.
- 한정훈, 「고려시대 13조창과 주변 교통로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23, 2007. 10, pp. 153-190.
- 황인규, 「고려 비보사사의 설정과 寺莊운영」, 『동국역사교육』 6, 1998. 2, pp. 47-78.

국문초록

남한강은 영월 오대산에서 발원해 한반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대하천으로 현대의 지리적 개념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왕실의 후원 아래 대규모 사원이 건립되고, 선승(禪僧)들이 직접 주지로 파견되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고려 왕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다. 또한, 수운을 이용해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주 덕흥창(德興倉)과 원주 흥원창(興元倉)이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력 역시 집중되었다.

이렇듯 남한강에서는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의 다양한 불교문화가 유입된다. 이를 반영하듯이 남한강 주변에는 약 60여점의 불교조각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고려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다. 이 불교조각들은 대부분 철불과 석불이며 남한강을 낀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철불의 경우는 충주지역의 철생산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전기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조성된 이 지역의 불상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통일신라의 전통양식을 계승하는 상들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고려전기에 새롭게 등장해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석불입상 역시 다수가 조성된다. 또한 중국 요로부터 새로운 도상이 수용되기도 하고, 원주 및 충주지역을 중심으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자성 있는 불상양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활발한 불상조성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먼저 고려왕실에 의해 대규모 선종사원이 건립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방관 역할을 대신할 선승을 주지로 파견함으로써 이 지역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장악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고려건국과 함께 시행된 조운제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치된 13개의 조창 중 대부분이 연안해로(沿岸海路)에 형성된 것과 다르게 내륙수운을 이용해 조운을 운반한 것은 충주의 덕흥창과 원주의 흥원창 단 2곳 뿐이다. 즉, 고려왕실에게 남한강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의도화된 요충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왕실과 선종사원의 결합을 배경으로 철불이 조성되는 사례는 통일신라 하대부터 이미 확인되는데, 통일신라 하대에 조성된 철불들이 지권인을 결하고 있는데 반해 고려전기 남한강 유역에서 조성된 철불들은 대부분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각각 지권인과 항마촉지인이라는 다른 도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석하는 선승들의 법맥이 조사선(祖師禪)을 추구하던 마조 도일계에서 교선교섭(敎禪交涉)의 사상 경향을 띠는 청원 행사계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도상의 수용과 변화에 있어 그 영향력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접근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Abstract

The Making of Buddhist Images in the Namhan River Area during the Early Goryeo

Min Hwal *

The Namhan River is a large river that flows from Mount Odaesan in Yeongwol across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present-day geography, it encompasses Gangwon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as well as part of Gyeonggi Province. This region was particularly subject to continuous attention in the Goryeo dynasty, during which period large-scale Buddhist temples were built under the patronage of the royal family, and Seon (Chan) Buddhist monks (禪僧) were appointed as chief priests of the temples and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region. Moreover, the introduction of a river transportation system as a means to transport grains collected as taxe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Deokheungchang (德興倉) in the Chungju (忠州) area and Heungwonchang (興原倉) in the Wonju (原州) area, two governmental warehouses that stored grains collected as tax from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s respectively, thereby caus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se areas.

Ba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gained through close links with the royal family, the Namhan River basin area saw a significant influx of various forms of Buddhist culture from nearby regions. As a result, some 60 Buddhist sculptures remain around the Namhan River, most of which were created in the early Goryeo period. These Buddhist sculptures mostly consist of iron and stone sculptures, and are evenly dispersed all over the regions penetrated by the rive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ron sculptures, it is speculated that the crafting of such artifacts was concentrated in the Chungju region, where iron was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produced in large quantity.

Created amid vigorous exchanges with other regions in early Goryeo, the Buddha statues of this region show a variety of aspects. While sculptures that succeeded the traditional style of the Unified Silla continued to be created, the early Goryeo era saw the emergence of standing stone Buddhas, which mainly prevailed based on the Chungcheong region. Moreover, new religious images were imported from Liao Dynasty China, while a unique style of Buddhist statue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regions also developed in the Wonju and Chungju areas.

The vigorous creation of Buddha statues in this region is attributable to, most of all, the large-scale construction of Seon Buddhist temples by the Goryeo Dynasty. At the time, there was a political intention behind the scene to dominate and wield direct power over the area by deploying Seon Buddhist monks as chief monks who would serve as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as well. Al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aterborne transportation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outset of the Goryeo Dynasty. Unlike most of the thirteen governmental warehouses built for tax revenues, which were installed along the Western Sea Paths, only Deokheungchang and Heungwonchang used the inland water transportation system to carry the collected taxes. In other words, the Namhan River was a strategic point for the Goryeo Dynasty, created with both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

Furthermore, the creation of iron Buddha statues under combined sponsorship of the royal family and Seon Buddhist temples was not an uncommon occurrence since the late Unified Silla. A matter of significant interest is that while the iron statues created in late Unified Silla mostly present the hand seal of the wisdom of Vairocana, those created around the Namhan River in early Goryeo mostly show the hand seal of touching the earth, or the subjugation of evil, whereby each iron statue used different hand seals. This may have been caused by the shift of Chan Buddhist doctrine from the teachings of Mazu Daoyi (馬祖道一), a Chinese school that followed the Patriarch Chan (祖師禪), to Qingyuan Xingsi (青原行思), another lineage that attempted to compromise between a school, whose main tenet was the transmission of the Buddha's teaching without relying on words or letters, and another school that advocated sudden enlightenment apart from words and letters. A more detailed approach on the methods and subjects of influence regarding this accommodation and shift in the style and form of Buddhist sculpture may be subject to further research.